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2024. 4. 29.(월) 14:00 ~ 14:26
장 소	위원회실
참석인원	7명 위원장 A 부위원장 B 위원 C, D, E, F, G
심사결과	찬성의결 (찬성 7, 반대 0)

회의록

(14:00 개의)

- (위원장 A)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A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이신 H 의정팀장님께서서는 성원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H) 임실군의회 의정팀장 H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7명 중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위원장 A)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입니다. 간사께서는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H) 2024년도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입니다. 스마트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기술을 이해하고, 스마트 농업 운영 현황과 우수 모델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농가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미래 농업 성장 방안을 파악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스마트팜 모델을 발굴하여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장동기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 주제와 출장국가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정부가 농업의 미래 성장 방안으로 스마트 농업 확산을 국정과제로 삼고 법률을 제정하며 관련 산업 강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로 농업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군 상황에 맞춰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인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우리군의 미래 농업에 대한 육성과 접목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장 내용입니다. 이번 국외공무출장을 통해 네덜란드 농업 선진화를 이끈 종자회사와 시설원예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선진 스마트 농업 기술과 동향을 파악하고, 스마트 팜 적용 시설을 방문하여 선진 농업 운영시스템을 비교·연구하여 우리군 접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센터를 방문하여 네덜란드 농산물의 안정성과 고품질 생산 유통 형태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장 개요입니다. 이번 출장은 5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이며, 출장국가는 네덜란드입니다. 출장 의원은 6명이며, 직원 4명이 수행하고 민간전문가 1명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출장 시 소요되는 예산은 의장과 부의장은 1인당 461만원, 의원은 421만원이며, 출장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출장 세부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을 시작으로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채소종자 회사, 온실 설비기업, 자동화 재배시설, 유통업체, 세계원예센터 등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관련 기관과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고, 5월 26일에 귀국하여 출장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의 기대효과로는 네덜란드의 선진 농업 정책을 공유하고 스마트 농업 시스템의 운영 실태와 성과 등을 청취하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저감형 농업을 위한 첨단농업 기술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발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고령화, 인구 감소 등 농업노동력 감소 대응을 위해 스마트 농업을 적용하여 우리군 농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의원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출장여비 세부 산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A)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간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D 위원) 일정이 6박8일이네요. 6박 8일동안에 네덜란드에 가서서 다 배우고 오실 수 있나요?
- (간사 H) 출장 세부일정을 보시면 네덜란드가 스마트팜 등 농업쪽에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오전에 1기관, 오후에 1기관씩 방문할 예정이고, 현지에 가서 보고 설명을 듣고 우리군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오려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D 위원) 알겠습니다.
- (C 위원) 민간전문가 1명이 같이 가신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가시나요?
- (간사 H) 그분은 네덜란드 농업과 관련한 시설을 잘 알고 계시고 현재 김제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중이십니다. 학교와 연계해서 네덜란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께서 방문기관 일정을 잡아주시면서 도움을 주셨고, 같이 가서서 통역과 설명도 해주실 예정입니다.

- (C 위원) 그럼 기자님은 동행하지 않으세요?
- (간사 H) 네. 저희 의원님과 직원들로 구성해서,
- (G 위원) 기자님들은 예전에는 참여했었는데 김영란법 제정 이후로 법적으로 어렵게 됐어요. 수년 전부터 기자님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 (C 위원) 그럼 견학하면서 보고 듣고 기재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각자 알아서 하시나요?
- (G 위원) 머릿속에 다 담아가시고 오시죠.
- (간사 H) 수행 직원이 같이 가니까 기록도 하고 사진촬영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도 방문하기 전에 사전조사도 하시고요.
- (G 위원) 요즘에 지방의원, 광역의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고 어디를 나가기만 해도 꼬투리가 돼서 말들이 많은데, 임실군 의회 출장 일정을 보면 여흥이나 휴식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으로만 짜여져 있어서 우리가 있는 걸로 보이네요. 하루종일 교육만 받는 걸로 돼있네요.
- (간사 H) 마지막 날은 기관방문 일정이 없어서 출국 전까지 시간이 있어서,
- (G 위원) 25일 하루만 쉬고 교육으로 딱 차있더라고요. 그렇게 믿어야죠. 우리는 안 가니까.
- (간사 H) 방문 기관은 다 섭외해 놓은 상태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외출장에 관해서 외유성이라고 방송에서 많이 보도돼서 이번엔 의원님들께서 외유성 없이 기관방문 위주로 진행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셔서 일정을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 (G 위원) 사실 임실군 농업을 들여다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임실이 스마트 농업에 뒤쳐집니다. 수경재배, 자동화 시스템들이 임실군이 타시군에 비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의원님들이 가서서 잘 배워 오셔서 임실군에 접목해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충분히 공부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장보고서도 써달라고 해주세요. 의원 1명당 1개씩 조사해 오라고 해주세요.
- (위원장 A)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그냥 가서 보고만 오지 말고요. 보고만 오면 여기서 부결을 시키고. 무엇이든지 배워오셔서 우리 임실군 농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농협 지부장님과 동행하시면 좋겠는데요.
- (G 위원) 그게 타 언론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방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가서 충분히 이만큼 배워왔다고 6명 의원이 해주시면.
- (위원장 A) 의원들 이름으로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 (간사 H) 결과보고서는 귀국 후 작성할 예정입니다.
- (B 위원) 현재 스마트팜이 정책적으로 화두인데요. 전북에서는 김제 스마트팜 단지가 국책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G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실은 이걸 찾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저희 농협에서도 스마트팜 관련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는 화훼, 국화라든지 딸기 같이 우리 임실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벤치마킹 할 부분이 있어서 대상지 설정은 잘하신 것 같고요. 군의회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자체나 의회에서 과연 이런 스마트팜이라는 분야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가, 네덜란드는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단순히 나열식으로 기관만 방문하면 놓칠 수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지자체에서 어떠한 육성과 지원 방안들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봐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말씀 드립니다.

○ (간사 H) 저희도 사전조사를 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G 위원) I 과장님은 가시나요?

○ (I 과장) 저는 가지 않습니다.

○ (G 위원) 사실 오늘 회의는 하지만, 이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임실군 스마트 농업이 너무 뒤떨어져 있으니깐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출장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될듯 싶습니다.

○ (위원장 A)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없나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 (D 위원) 이번 출장을 통해서 우리 임실군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임실군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간사 H)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일손 부족 때문에 스마트팜이나 자동화 시설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임실군은 뒤쳐져 있거든요. 저희가 다녀와서 우리군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E 위원) 그런데 배워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라가면 좋을 텐데요. 참여할 의향 있는 청년분들. 같이 가서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 (간사 H)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이 함께 가시면 좋을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처럼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A)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니까 혹시 다음에라도 출장을 가시면 전문가중에 몇 분 가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모집해서 같이 가는 것도 좋겠어요.
- (I 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의원님들께서 관내에도 전문가가 있다고 하셔서 그분들도 같이 갈 수 있으면 함께 가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의회에서는 예산이 없고 그분들이 가신다고 하면 자부담으로 가야 하는데 집행부와 의회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다른 분들을 모시고 동행하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함께 가시는 박사님은 국내에서 스마트팜 분야에 대해서 유능하신 분 같아요. 중앙정부와 전북, 여러 지자체에서 같이 동행하셨다고 하는데 직접 기관과 시설을 다 예약하고 안내를 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을 일부러 모시고 가서 직접 배우고 오는 기관이 있다고 해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외유성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배제를 하고,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분께서 일정을 다 잡아서 예약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날은 암스테르담이라도 돌아보려고 해서 비행기 타기 몇 시간 전에 암스테르담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부분 중에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의원님들이 이번에 가시면 많이 공부해 오셔서 집행부와 논의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 (F 위원) 임실군에 직접적으로 스마트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제도적인 것을 배워 오셔서 조례를 통해서 여기에서 접목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 (I 과장) 실제로 접목을 시키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오실 겁니다. 저는 같이 가지는 못하지만요.

○ (위원장 A)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고, 의회에서 답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해안으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심사의결서의 찬성, 반대란에 표기 하여주시고, 하단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결서 작성)

심사의결서를 다 작성하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간사께서는 심사의결서를 회수하고 심사 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결서 회수 및 집계)

심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적정 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결과는 출석위원 7명 중 찬성이 7명으로 집계되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4:26 산회)